

종교

토착 종교의 뿌리와 외국의 영향

이세신궁 아라마쓰리아 궁 신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세신궁에는, 일본 황실의 조상신의 하나로 불리어지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고 있다.



일본에서 종교는 종교적 전통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가 지방 이교도 전통을 지배했던 유럽과는 달리 일본의 고유한 종교인 신도는 일본에 국가가 성립되었던 시초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왔다.

6세기 무렵 일본에 불교가 소개되었을 때 신도와 불교 신앙은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일본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장 뚜렷한 예는 신도의 ‘가미’가 불교 신들이 육체화 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혼지 스이자쿠’ 이론이다.

유교와 도교는 1,000년 이상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두 개의 “수입” 종교이다. 유교의 가르침은 일본의 국가 성립 시대

(6세기에서 9세기)의 그리고 다시 에도 시대 (1603-1867)의 일본의 도덕적 및 정치적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유교의 영향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종교로서의 도교 역시 중국 달력의 사용과 점 및 길흉과 관련된 대중의 믿음을 볼 때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신도

종종 “신의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신도라는 말은 두 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홀로 사용할 때 ‘가미’라고 발음하는 첫 번째



글자는 “신”, “신성”, 또는 “신성한 힘”을 의미하며 두 번째 글자는 “길” 또는 “방향”을 의미한다. 야요이 시대(BC 300 -AD 300)에 농경문화의 도입으로 신도의 한 부분이 된 농경 의식과 축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가미’라는 단어가 하나의 신을 의미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는 또한 야요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의 중요 숭배 대상이었던 수많은 신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미’는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신성한 돌과 나무, 산 및 그 밖의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자연 ‘가미’가 있다. ‘우지가미’라고 불리는 씨족 ‘가미’는 원래 특정한 씨족의 수호신이었으며 종종 씨족의 신격화된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다노 가미’ 또는 논을 신은 모내기과 추수 축제에 숭배했던 신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신인 ‘이키가미’가 있다. 서양에서의 신과 가장 닮은 ‘가미’는 하늘의 신성으로서 ‘다카마가하라’(천상계)에 산다. 그들을 신도의 중심 신사인 이세 신사에서 숭배하는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다스린다.

6세기 일본에 고도로 조직화된 불교 교리가 도입되어 널리 보급되었지만 이전에는 조직되지 않았던 토착신앙과 의식이 점차 신도로서 체계화되었다. 확실한 신화적 및 종교적 토대를 근거로 황제의 혈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712년과 720년 각각 ‘고조키’(‘고대 문물기록’) 및 ‘니혼 쇼키’(‘일본의 연대기’)가 편찬되었다. 황실 혈통을 신화시대의 신에게까지 추적하면서 이 책들은 어떻게 ‘가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의 섬들과 주요 신들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태양의 여신), 츠쿠요미노 미코토(달의 신) 및 수사누노 미코토(폭풍의 신)를 만들었는지 설명한다.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자손이 짐무 황제인데 일본 전설에 의하면 그가 바로 첫 번째 통치자이다.

신도의 공식적인 성전(聖典)의 부재는 이 종교의 부족한 도덕적 계율에 영향을 주었다. 그 대신 신도는 ‘가미’와의 관계에서의 의식적인 순결과 깨끗함을 강조하였다.

불교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는 기원 1세기에서 2세기경 중국에 퍼졌으며 한국을 거쳐 6세기 중반 백제의 왕이 불상과 경전의

사본을 일본 황제에게 보내면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영향력이 있었던 천불교 세력인 소가가(家)가 반불교 분파들을 처단한 후 불교는 상류층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호류지(호류사, 현재 나라현 소재)와 같은 주요 사찰의 건축을 황실차원에서 지원했던 같은 쇼토쿠 왕자(574-622)는 일본 불교의 설립자로 간주된다.

쇼무 황제(701-756)는 불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채택하였으며 나라에 도다이지(등대사)와 그곳의 거대한 불상을 세웠다. 그러나 불교와 신도는 계속해의 공존하였다. 국가의 번영을 위한 의식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었으며 불교보다 우세하였던 6개의 나라파는 그 당시 전통적으로 학구적이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헤이안 시대(794-1185) 초기에 사이토 신관(神官, 767-822)에 의해 덴다이파가 일본에 소개되었으며 코도 다이시로 알려진 구카이(774-835)가 신곤파를 소개하였다. 이 두 개의 비밀 분파가 황실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의 종파가 되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일본 불교에 두 가지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첫째, 린자이파의 창시자인 에이사이(1141-1215)에 의해 일본에 쯔학파가 설립되었으며 소토파의 창시자인 도겐(1200-1253)에 의해 수정되었다. 쯔의 직관성과 자제 및 명상에 대한 강조로 그 시대의 엘리트 전사들 중 이해가 빠른 지지자들이 쯔을 수련했다. 쯔 수행은 깨달음(‘사토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젠’이라고 하는 정좌 명상과 ‘코안’이라고 부르는 비이성적인 수수께끼를 사용하였다. 이 두 파의 중요한 차이점은 린자이 쯔은 소토 쯔보다 ‘고안’ 수련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다.



불교의 수도승
삿갓을 쓰고 좌선을 한 채 탁발하는 수도승의 모습이다. (사진 제공 : AFLO)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일반인 사이에서 대중적인 불교 종파가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의 이름을 외는 것이 아미타의 서방 극락에서 환생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정도 불교 종파와 법화경의 제목을 외우는 것을 강조하는 니치렌 종파를 포함된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도쿠가와 막부는 주민들을 통제하고 기독교를 전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절의 신도 수는 많이 증가하였지만 살아있는 종교로서 불교의 생명력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에 이 제도는 신도 신사로부터 불교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신도를 국교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반불교 감정의 영향으로 붕괴되었다. 이러한 영향과 오늘날 사회 환경의 변화로 불교는 일본에서 그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불교식 제사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불교
행사이다.

기독교

일본의 기독교는 세 가지 단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 16세기 중엽 처음으로 기독교와 접촉한 시기와 19세기 중엽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국가적 통제가 끝난 후 기독교가 다시 소개된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전래와 박해

예수회 선교인이었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1549년 7월 가고시마에 도착하였다. 예수회 선교인 활동은 일본의 4개의 주요 섬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1679년 6명의 ‘다이묘’(지역 군장)가 개종하였고 그때 당시 약 100,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군장 오다 노부나가와 이전의 군대 통치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수회의 노력에 호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자 히데요시는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반대하였으며 1597년 나가사키에서는 26명이 처형당하였다. 1600년에 일본의 실제 통치자가 된 후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처음에 선교인들을 묵인하였지만 1614년에 도쿠가와 정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선교인들을 추방하였다. 이때 일본에는 30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약 3,000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박해의 결과로 믿음을 포기하였다. 그 밖의 많은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숨기고 비밀리에 기독교를 계속 실천하였다.

재전래

일본이 쇄국 정책을 포기한 후, 외국 선교인들은 1859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1873년까지는 공개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30,000명 이상의 “숨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200년이 넘는 기간 박해를 받으며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어 온 모임들에 속하였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선교인들은 이때부터 모두 활동적이었고 개종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교육과 노동조합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증가하는 국가주의와 애국적인 의무로서의 신도 신사 방문자의 증가로 많은 기독교인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시대의 기독교 활동은 점유 정권의 지원을 받았지만 소수만이 개종하였다. 2017년, 기독교 인구는 1,900,000명으로 총 인구의 1.5퍼센트에 불과하다



표면상으로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일본인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외국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오랜 기간,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친밀함이 기독교인의 수 적인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증가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에 대해 관대한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의 다신론을 거부한다는 서약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본의 종교

신도와 불교의 추세

도시화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은 가정 단위로 속해 있는 특정 불교 사찰이나 개별 신사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도교도이거나 불교도라고 생각한다. 문화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종교통계조사(문화청)에 따르면 신도의 신자는 1억 7150만 명, 불교 신자는 8,465만명으로 두 종교의 신자 수를 합치면 일본 총인구의 1.38배에 가깝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종교에 대해 정기적인 숭배를 하거나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례 행사의 일부에 참석하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신사와 절을 방문한다. 이러한 연례 행사에는 신사와 절의 축제가 있다. 해가 바뀌면 신사나 절을 제일 먼저 방문(‘하쓰모데’)하고, 8월 축제(‘본’) 기간 중에 가족의 묘를 찾는다. 개인의 일생 동안 행하는

신흥 종교

20세기 일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교적인 발전은 많은 신흥종교의 보급이다. 이러한 신흥종교의 가르침은 신도, 불교, 유교, 도교, 민속종교 및 샤머니즘의 특징들에 더하여 광범위하게 이전 종교의 전통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신흥종교의 설립자들은 종종 살아있는 신(‘이키가미’)으로 공경 받기도 한다.

신흥종교의 한 가지 매력은 대가족, 지역 사회 및 전통적인 종교가 제공하였던 정신적 및 영적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준다는 점이다.

1995년 3월 도교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린 가스 공격 이후로 몇몇 신흥종교가 신자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방법의 위험한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13명이 사망하고 6천 명 이상이 부상당한 그 공격은 사이비 종교인 ‘아움 신리교’(오진리교)가 저지른 것이었다.

일본의 종교 분포

	신도	불교	기독교	기타
신도, 절, 교회, 및 그 밖의 조직	87,696	84,382	8,626	35,437
교직자 (신부, 목사, 등)	71,142	355,886	30,852	199,358
신도 수	86,166,133	85,333,050	1,921,834	7,743,714

2017년 12월 31일 현재

참고 : 이 통계는 다양한 종교 단체가 제공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다. 연도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출처 : 문화청 (2019년 7월 현재)